

“박 팀장아,  
팀원들은 고기 굽는게  
싫대!”



*“김 팀장, 오늘 퇴근하고 삼거리 삼겹살 집에서 가볍게 한잔할까?”*

“너도 알잖아. 같이 영업하고 다닐 때 주문 왕창 받았을 때나, 미수금 때문에 대판 싸우고 스트레스 만땅일 때 삼겹살에 소주만 한 게 있었냐?”

그래, 그 기분 모르는 게 아니다. 어려웠던 너의 유년 시절 모처럼 먹었던 돼지고기에 대한 기억, 일찍 돌아가신 네 어머니와 인상이 비슷한 주인집 사장님. 그래서 너희 팀 회식을 맨날 여기서 했던 거냐, 응?

박 팀장, 내가 거창한 리더십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야. 팀원들도 뭔가 하나쯤은 자신들이 정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? 사소하더라도 숨은 쉬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?

*“박 팀장아~ 이제는 고기 안 굽는 데로 가서 회식해라, 알겠지?”*

I 필자: 에밀 팀장 in 팀장클럽([café.naver.com/teamleadersclub](http://café.naver.com/teamleadersclub))